

건설교육기관 수료생의 연령별 건설업 취업 유인방안

A Plan to Attract Graduates from Construction Education Facilities to Employment in Construction Industry by Age

안 종 혁*

정 현 용*

김 현 수*

손 창 백**

Ahn, Jong-Hyeok

Jeong, Hyun-Young

Kim, Hyeon Su

Son, Chang-Baek

Abstract

Currently,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decreasing every year due to people's poor perception, high labor intensity, unstable employment structure, and welfare problems, as people avoid entry. Accordingly,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o attract trainees and graduates from domestic construction education institutions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If institutional devices are prepared to prepare for the future by improving the welfare system such as unemployment benefits and retirement deduction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many trainees in their 20s and 30s will be attracted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If it helps expand hands-on education through on-site linkage and has the necessary technical skills for practice, it is believed that trainees and graduates in their 4s and 60s will be attracted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키 워 드 : 건설교육기관, 건설기능인력, 유인방안

Keywords : a construction educational institution, construction skilled worker, a plan to attract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건설업은 옥외이동생산, 주문제작 생산이라는 특징 등으로 인해 기능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이다. 하지만 현재 건설업은 부정적인 인식과 높은 노동강도, 불안정한 고용구조, 복지 등의 문제로 인해 사람들이 진입을 기피하여 건설업에 필요한 신규 기능인력들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제시한 '건설 산업 인력현황보고'¹⁾에 따르면 건설근로자들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숙련·비숙련인력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건설근로자들 대부분은 숙련·비숙련인력들이 약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건설업체들은 숙련인력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비숙련인력들은 적정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건설교육기관 수료생들을 건설업으로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숙련·비숙련인력들이 부족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건설기능인력의 연령별 진입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건설기능교육기관의 교육생 및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건설업으로의 취업을 유인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구범위를 한정하였다. 조사는 국내 8곳의 건설기능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있는 교육생 및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성실하게 응답한 116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사기간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되었다.

2. 건설기능인력 연령별 진입 현황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제시한 '2020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보고서'²⁾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1,22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건설근로자들이 건설현장에 진입한 연령을 보면 2~30대의 경우 48.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4~50대가 26.6%로 두 번째로 높았으며, 60대 이상은 1.2%가 건설현장에 진입을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각 연령에 맞는 유인방안을 찾아 이들이 건설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유인하여 기능인력 부족 현상을 개선하고자 한다.

* 세명대학교 건설공학과 석사과정

** 세명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교신저자(cbson@semyung.ac.kr)

3. 건설교육기관 수료생 취업 유인방안

건설교육기관 수료생 취업 유인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표 1과 같이 2~30대에서는 건설업의 실업급여, 퇴직공제제도 등 복지제도를 향상해야 한다고 응답한 인원이 11명(16.8%)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4~50대에서는 현장연계 실습교육을 확대하여 실무적인 건설기능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인원이 44명(33.8%)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60대 이상에서는 현장연계 실습교육을 확대하여 실무적인 건설기능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인원이 17명(47.1%)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표 1. 건설교육기관 수료생 취업 유인방안 (복수응답)

건설교육기관 수료생 취업 유인방안	2~30대		4~50대		60대 이상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응답수(명)	비율(%)
현장연계 실습교육을 확대하여 실무적인 건설기능교육을 강화	7	10.6	44	33.8	17	47.1
비리, 담합 등 건설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	6	9.1	8	6.2	0	0.0
미래 유망한 산업이라는 비전을 적극 홍보	3	4.5	8	6.2	2	5.6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건설산업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	9	13.6	2	1.5	1	2.8
높은 노동강도에 맞게 건설노임을 향상	7	10.6	12	9.2	3	8.3
건설업의 실업급여, 퇴직공제제도 등 복지제도를 향상	11	16.8	7	5.4	1	2.8
위생 및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	3	4.5	7	5.4	3	8.3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개선하여 미래가 불투명한 불안감을 해소	5	7.6	25	19.2	2	5.6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위험한 직업이라는 이미지를 개선	5	7.6	8	6.2	1	2.8
높은 노동강도를 경감할 수 있도록 신기술, 신공법을 개발	2	3.0	2	1.5	2	5.6
기능공 신분을 기술인 신분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승급제도를 도입	6	9.1	7	5.4	4	11.1
휴일제공, 연장근로수당지급, 근로시간준수 등 근로조건을 개선	2	3.0	0	0.0	0	0.0
합계	66	100	130	100	36	100

4.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건설교육기관의 수료생들을 건설업으로 유인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2~30대 수료생들을 건설업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의 실업급여, 퇴직공제제도 등 복지제도를 향상시켜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한다면 많은 2~30대 수료생들이 건설업으로 유인될 것으로 판단되며, 4~50대와 60대 이상의 수료생들을 건설업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연계를 통한 실습교육을 확대하고 실무에서 필요한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한다면 많은 4~60대 이상의 수료생들이 건설업으로 유인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교육기관의 수료생들을 건설업으로 유인하는 방법에 대해 제시하였으나, 연구의 범위를 건설교육기관의 교육생 및 수료생으로만 한정하고 개략적인 개선방안만을 제시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건설교육기관 수료생들을 효과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Acknowledgement

본 논문은 2018년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비(NRF-2018R1D1A1B07046838) 지원으로 수행된 연구임을 밝히며 이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고 문 헌

1.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 건설 산업 인력현황보고, 2018
2. 건설근로자공제회, 2020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 보고서, 2020
3. 유성곤, 손창백, 건설교육기관의 기능교육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제20권 제4호, pp.86~93, 2019.7